

손창섭의 「잇을 수 없는 과거」 연구*

곽 상 인**

요약

본고에서는 손창섭의 최근 발굴작 『잇을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일차적으로 이 작품의 서사구조가 어떠한지를 살폈다. 그 결과 기존 작품에서 보았던 손창섭만의 문학적 특징, 예컨대 남성의 폭력성, 상처받은 여성, 결혼문제, 여성의 수난, 원치 않은 결혼과 이혼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러한 문학적 특징은 그의 초기작에서부터 1960년대에 발표한 신문연재소설에 이르기까지 계열화되었다.

이 작품에 등장한 손창섭의 남성인물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 성향을 보였다. 두 번째 상처받은 여성을 바라보거나 이를 해결하려는 주변인물들의 태도가 여전히 멀시와 조롱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세 번째 손창섭의 여성인물들은 남성들의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였음에도 주변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기는커녕 무책임한 재혼을 권유받았다. 네 번째 남성인물은 이상적 타자의 주변을 맴도는 다른 남성들에 대해 부정의식을 표출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로 상징화된 세계에 대해 부정의식을 드러냈다.

이상으로 살펴본바, 이 작품이 기존 작품들과 유사한 패턴(계열)을 보인다고 해서 또한 대중지에 발표되었다고 해서 작품성을 폄하할 필요는 없다. 손창섭의 인물은 차이를 통한 반복으로 완성된 새로운 주체이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 작품은 손창섭에게 있어 본격문학에서 대중성으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으며, 1950년대에 함몰된 손창섭을 그 이후의 '손창섭'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 이 논문은 2020년 1월 9일 숙명여자대학교에서 열린 <한국문학과공공학회> 겨울학술대회(주제-위선과 기만, 그리고 문학과 종교)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당시 제목은 「손창섭의 대중성 연구」였으나, 내용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제목 또한 교정하였다. 아울러 당시 토론을 해주신 서울대학교 김민수 선생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융합대학 교양교육부 객원교수

주제어: 손창섭, 계열, 차이, 반복, 대중성, 애벌레 주체

목차

1. 서론
2.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서사구조
3. 다른 작품과 연계된 반복 구조와 차이의 생성
4. 결론

1. 서론

본고에서는 손창섭의 「잊을 수 없는 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작품은 본고의 필자가 손창섭의 대중문학성을 연구하기 위해 작품을 모으던 중 우연히 발견했다. 총 8쪽 분량, 세로쓰기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작품은 손창섭이 1959년 8월에 탈고하여 1960년 2월에 『명랑』(제5권 통권50호)에 실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한 번도 언급된 바가 없었으며, 손창섭 연보에서도 당연히 정리되지 못한 작품이다. 작품 중간마다 삽화가 그려져 있는데, 이는 김세종이 그렸다. 이 작품의 원문을 『문학의 오늘』(2018년 봄호, 382-399면)에 재수록하였다.

손창섭(1922~2010)은 한국문학사에서, 특히 '전후소설가' 중에서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라 하겠다. 일찍이 조연현이 밝힌바, 그의 인물은 '비정상', '미숙과 결합', '병자', '부자연스러움'¹⁾ 등을 겸비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이어지는 평가에서도 그는 '절망', '우울', '무의미', '허무의 늪', '잉여' 등의 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급기야는 '아웃사이더', '수인', '소수자' 또는 '외부자'로 규정되어왔다. 이러한 부정적인 연사는 손창섭(의 작품 내지는 인물)의 핵심을 위요하거나 관통하는 열쇳말로 영향력을 발휘

1) 조연현, 「병자의 노래—손창섭의 작품세계」, 『현대문학』, 1955.4, 74-78면.

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기왕의 평가들이 대체적으로 손창섭의 1950년대 작품에 한정된 결과라는 점이다.

그러나 손창섭은 1950년대 후반부터 독일 직전(1973년)까지 자신을 둘러싼 그늘진 평가로부터 벗어나고자 다양한 시도를 했던 작가였다. 여기서 다양한 시도라 함은 대중성을 띤 작품을 신문이나 대중잡지에 발표한 것이라 하겠는데, 196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신문에 장편을 연재할 때에는 ‘손창섭이 타락했다’는 소문까지 들었다고 술회하고 있다. 이에 손창섭은 ‘통속소설을 쓰고자 한 것이 아니라, 문학지에 연재했어도 그렇게 썼을 것이라’²⁾고 말한 바 있다. 곧 손창섭에게는 지면의 성향이나 그 사회적 영향력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작가로서의 소명의식을 다 하기 위한 작품 발표 지면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던 것이다.

손창섭은 등단 초기³⁾인 1940년대 말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그는 순수 문예지에 작품을 주로 발표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신문이나 오락성을 표방한 대중잡지에도 작품을 발표했다. 1949년 3월 『연합신문』에 작품 두 편을 발표하고, 그 이후 뜸하다가 1952년에 「공휴일」을 『문예』에 발표하면서 본격문학의 길에 접어들었던 손창섭은 1950년대 중반까지 왕성한 작품활동을 보여주었다. ‘자본’의 메커니즘 속에서 ‘신문’과 ‘작가’는 은밀히 합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작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벗기 기’에 급급한 퇴폐적 양상이 심해졌다고 판단된다.⁴⁾ 물론 손창섭도 아무리 작가적 소명의식이 강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회적 풍토로부터 자유

2) 손창섭·박혜경, 「동기의 분석: 나는 왜 신문소설을 쓰는가—「부부」의 작가 손창섭 씨의 말 한다」, 『세대』(제3호), 1963.8, 210면.

3) 손창섭의 최초 작품은 당시 「봄」이다. 이 작품은 손창섭이 17세 때 ‘고문구’라는 필명으로 일본에서 『아희생활』(1938.6)에 투고했다. 이후 ‘손창섭’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최초의 작품은 현재까지 「싸움의 원인은 동태 대가리와 꼬리에 있다」(『연합신문』, 1949.3.29)로 알려졌다.

4) 당대의 어떤 평자는 신문연재소설이 무기력을 자극하고 쾌락의 욕구를 부추기며, 사고하는 습성을 위축시켜 감정만을 북돋우며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퇴폐를 조장한다고 했다. 한원영, 『한국현대신문연재소설연구(하)』, 국학자료원, 1999, 1179면.

롭지 못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어쨌든 손창섭이 1950년대 중반까지 본격문학을 주로 써왔다면 이 무렵 이후부터(1959년 말)는 순수문예지보다 대중잡지 및 신문에 작품을 주로 썼다고 봐도 무방하겠다. 따라서 앞선 평자들의 우울한 언사를 벗어나기 위해 손창섭이 그간 보여준 ‘대중성’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해야만 그가 차지하는 문학사적 위치가 규명되리라 판단한다. 곧 절망적 현실, 병자, 무의미, 허무, 어두운 습지로부터 손창섭을 넘어서게 하려면, 대중성을 확보해가는 ‘1960년대의 손창섭’에 대한 연구도 병행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최근 들어 손창섭의 초기단편소설을 넘어서 1950년대 중반 이후 각종 문예지와 대중잡지, 1960년대 신문에 발표된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와 관련한 연구 영역이 확장⁵⁾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문예지와 대중잡지에 숨겨져 있던 손창섭의 작품들을 발굴하여 분석⁶⁾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

손창섭에 대한 평가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1950년대 중반 이후의 대중매체 시장도 살펴야 하겠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분야의 잡지가 교양과

5) 김명임, 홍주영, 류동규, 강유진, 방민호, 한명환의 글과 줄고가 대표적이라 할 수가 있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람. 김명임, 『손창섭 소설 연구-인물구조와 그 관계양상을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논문, 2005년 2월. 홍주영,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여성비판의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7. 류동규, 『1960년대 손창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문화와융합』(제31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09년 5월, 185-206면.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12년 2월.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제58호), 2012년 5월, 199면.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 걸』, 『대중서사연구』(제18집), 대중서사학회, 2007. 한명환, 『1960년대 손창섭 신문소설의 사회적 연구-1960년대 사회적 인습과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신문소설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제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년 4월, 463-493면. 줄고, 『손창섭 신문연재소설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년 8월.

6) 신은경, 『손창섭의 1950년대 후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변화 양상-『아리랑』에 실린 『애정의 진리』를 중심으로』, 『어문논집』(제70집), 민족어문학회, 2014, 117-143면. 줄고, 『손창섭의 최근 발굴작 『애정의 진리』 연구』, 『한국문학연구』(제52집), 한국문학연구소, 2016년 12월, 325-353면. 줄고, 『대중매체에 발표된 손창섭의 소설을 발굴하다』, 『문학의 오늘』, 2018년 봄호, 400-404면.

정보와 오락을 제공했다.)⁷⁾ 1950년대 잡지는 ‘대중성과 시대성을 표방하면서 당대의 자잘한 가십에서부터 사회전반에 걸쳐 있는 이슈까지 많은 내용을 담아냈다. 대중잡지 발행인들도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와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장안의 화제가 되는 사건들을 모아 엮었고, 대중적인 인기를 구가하기 위해서는 야담이나 실화, 남녀의 로맨스를 첨가⁸⁾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잡지사도 기업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대중매체의 주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도 입증했다. 따라서 순수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했던 작가들이 통속과 대중문화를 표방한 잡지에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이는 대중문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대중매체 업계의 지향점과, 작품을 써서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도태되어 작가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작가들의 현실적 고민이 합쳐진 결과라 하겠다. 작가들은 부득이하게 신문사의 통속성과 대중성에 협상했을 가능성이 농후했다고 볼 수 있다.⁹⁾ 손창섭의 경우도 당대 주가를 올리고 있던 『아리랑』, 『명랑』, 『소설계』에도 작품을 발표하여 그의 대중성을 확인했다. 본고에서는 앞서 언급한바, 지금까지 논의된 바가 없었고 연보에서도 누락됐던 「잊을 수 없는 과거」(『명랑』(1960년 2월)를 분석하고자 한다. ‘잡지 르네상스기’¹⁰⁾에 발표된 이 작품은 손창섭이 신문연재소설 쓰기로 전환했다고 판단되는 1960년 초에 쓰였다. 다시 말해 대중잡지에 마지막으로 발

7) 정진석, 『한국잡지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85면.

8) 편집부, 『한국잡지100년』,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1995, 285-286면.

9) 1960년대는 신문의 발행부수 및 구독자의 증대로 인한 대중문화의 기틀이 마련되던 시기였다. 그 이후 양적 팽창을 이룬 저널리즘은 소설의 장편화, 대중화, 연재화를 가져왔다. 강유진, 앞의 글, 32면.

10) 정진석은 잡지의 발전 단계를 크게 9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기 잡지문화이식기(1896년 이전), 제2기 애국계몽운동기(1896-1910), 제3기 잡지의 동면과 종교잡지기(1910-1919), 제4기 민족주의 사회주의 양립기(1920-1930), 제5기 제1차 신문잡지기(1931-1944), 제6기 좌우의 대립과 혼란기(1945-1949), 제7기 잡지 르네상스기의 정론잡지기(1950-1963), 제8기 제2차 신문잡지와 주간지 전성기(1964-1986), 제9기 자율경쟁과 다양화기(1987년 이후). 정진석, 앞의 책, 13-14면.

표한 작품이 「잊을 수 없는 과거」라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첫 번째 발굴한 작품의 서사구조를 살피고, 다른 작품과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지를 그 계열을 살피겠다. 그런데 계열로 보면 이 작품이 손창섭의 기존작품과 이후의 작품 간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경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유사한 서사구조나 인물 양상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분명 그 안에서는 차이와 반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 발굴 작품은 손창섭이 발표했던 여러 작품의 변주임을 확 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왕의 작품들과 이 작품이 유사한 서사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해도, 들뢰즈의 개념을 빌리자면 ‘헐벗은 반복’이 아니라 ‘옷 입은 반복’임을 기억해야 한다. ‘옷 입은 반복’은 의미를 만들어내면서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대중적인 글쓰기를 시도한 손 창섭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이에 그의 주체성을 ‘애벌레 주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곧 대중소설을 쓰고자 하는 손창섭의 또 다른 잠재성이 대중매체를 만나 분화되었다고 봐야 손창섭 의 문학사적 자리는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2.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서사구조

1950년대 후반 대중매체에 발표했던 소설들이 통속소설의 전형적 형태로 전락했다고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부정적 견해는 ‘본격과 통속’이라는 이분법적 구도가 강하게 작용한 탓이리라. 곧 ‘대중문학이 비문학을 대표하여 표적이 된 데는 신문과 대중지를 거점으로 증식된 통속소설이 문학시장을 잠식해갔기 때문’¹¹⁾이다. 당시 대중문학의 출현과 성공과 사회적 과장은 문단에서 확고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던 순수문학과의 자리

11) 이봉범, 『1950년대 신문 저널리즘과 문학』,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근대문학과 신문』, 동국대출판부, 2012, 215면.

를 위태롭게 했다고 볼 수 있다. 손창섭의 경우에도 본격과 통속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작품활동을 했기에, 당대의 부정적인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은 부정할 수가 없다.

본고에서는 새롭게 발굴한 「잊을 수 없는 과거」를 분석함으로써, 손창섭의 대중성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작품이 실린 대중오락지 『명랑』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명랑』은 1956년 1월에 창간되었으며, 대중오락지로 소설, 수기, 연예에 관한 글들을 수록했다. 초대 사장은 황준성이었으며 그 뒤를 이어서 김회수, 권우가 사장을 역임했고, 1980년 7월에 폐간되었다가 1987년에 복간되었다. B5판 200면 정가 1천원으로 출범했으며, 동서양의 해학, 풍자, 유머를 발굴 소개하고 각계각층의 소담을 수집 게재하여 전통문화의 전승 및 문화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했다. 또한 5·16 군사정변을 맞아 사회정화 차원에서 폐간되었다가 1964년 1월 재등록 후 또다시 1980년 7월 사회정화 차원에서 폐간 조치되는 운명을 겪었다.¹²⁾ 창간에 이어 폐간과 복간이 이루어지던 지점은 사회적으로 볼 때 군사정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 정화’라는 권력적 명분에 휘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대중매체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대중잡지의 사회적 기여도가 높았음을 반증하는 사례이기도 하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은 후 1987년 12월에 『소담』이라는 제호로 복간했다 다시 『명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잊을 수 없는 과거」는 손창섭이 1960년대에 본격적으로 신문장편소설만을 주로 연재하는 과정에서 대중잡지 『명랑』에 발표한 마지막 단편¹³⁾

12) 편집부, 앞의 책, 285-286면.

13) 1960년대 이후에도 손창섭은 단편소설 「육체추」(『사상계』, 1961.11), 「신의 회자」(『현대문학』, 1961.5), 「공포」(『문학춘추』, 1965.1), 「환관」(『신동아』, 1968.1), 「청사에 빛나라계백의 처」(『월간중앙』, 1968.5), 「흑야」(『월간문학』, 1969.11)를 발표했고, 『신동아』(1961)에 장편(掌篇)소설을 발표하기도 했다. 기타 짧은 산문의 경우 여러 신문과 잡지 지면을 통해 발표했으며, 아울러 1993년부터 2001년까지는 육필시조를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서지 사항은 김민수의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7년 8월,

이라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자신의 대중성을 시도한 것이라 봐야겠다. 예컨대 1960년대에 들어서서 그는 본격적으로 『대구일보』에 그의 최초장편연재소설인 『세월이 가면』을 1959년 11월부터 1960년 3월 30일까지 연재하였으며, 『저마다의 가슴 속에』(통속의 벽)(『세계일보』, 『민국일보』), 『내 이름은 여자(여자의 전부)』(『국제신문』), 『부부』(『동이일보』), 『인간교실』(『경향신문』), 『결혼의 의미』(『영남일보』), 『아들들』(『국제신문』), 『이성연구』(『서울신문』), 『길』(『동이일보』), 『삼부녀』(『주간여성』), 『봉술랑』(『한국일보』) 등을 쉬지 않고 발표했던 때문이다.¹⁴⁾

그렇다면 이 장에서는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계를 살펴보자. 이 작품에서는 덕호와 순애, 그리고 병삼 사이에서 발생한 ‘사랑’의 문제가 서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라 하겠다. 세 인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로맨스로 인해 인물들은 각자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가 소설의 핵심적 내용이다. 특히 주인공인 덕호는 순애를 겁탈한 인물이기에 무거운 마음을 안고 고향으로 향한다. 덕호를 고향에 내려오게 한 인물은 병삼인데, 병삼은 순애와 약혼을 한 사이이다. 그러니 덕호는 고향에 내려와서도 편치가 않은 것이다. 덕호는 고향을 찾아서 병삼과 순애, 집안사람들을 만나 지난 세월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듣는다. 특히 자신이 겁탈했던 순애가 불우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자책하기도 한다. 급기야 순애와 재회하게 된 덕호는 순애에게 ‘자신을 원망하는지’ 묻지만, 순애는 ‘평생 원한을 품고 살 것’이라고 말해 덕호의 마음을 무겁게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이 작품의 서사를 파헤쳐보도록 하겠다. 덕호는 취직을 위해 면사무소에 들러 호적 초본을 부탁한다. 그때 순애의 약혼자였던 이병삼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는다. 순애를 겁탈한 덕호가 고향을 도망

143-159면)를 참조하기 바람.

14) 이들 작품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손창섭 신문연재소설 연구』(줄고, 앞의 글)를 참조하기 바람.

쳐나오던 날, 병삼은 덕호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피운 적이 있다. 그 이후로 덕호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향을 찾지 않았던 것이다. 이유는 동네사람들이 덕호 자신을 미워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순애와 병삼 사이를 갈라놓은 장본인으로 자신을 지목했던 때문이다. 병삼의 편지에는 다음의 내용이 적혀 있다. 마을 사람들은 순애 및 병삼과 관련한 일들을 현재는 잊었으니 덕호에게 고향에 돌아와도 좋다는 것, 병삼도 덕호를 용서했으니 괜찮다는 것, 또한 일 년 전에 덕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덕호의 부친이 죽기 전 병삼과 순애를 불러 ‘덕호를 용서해주라’고 했다는 것, 순애도 덕호(의 겁탈)에 대해 한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 모친이 기다리고 있으니 내려오라는 것이다. 편지 한 통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그간 덕호의 개인사가 일정 부분 드러나게 된다.

병삼의 편지를 받고서 덕호는 서울을 떠나 고향인 다랫골로 내려간다. 고향에 다가갈수록 덕호의 마음은 순애로 인해 부담스럽고 불편하다. 순애가 처한 불행의 원인이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죄책감이 일기 때문이다. 순애는 다랫골에서 ‘드물게 보는 미모의 소녀’이고 ‘인물만 출중할 뿐 아니라 마음씨도 고왔’기에 ‘동네의 젊은 축들은 누구나 순애와 가까워지기를 은근히 바랐’¹⁵⁾던 인물이었다. 순애의 품성과 외모가 워낙 출중하다 보니 동네의 젊은이들이 순애와 가까워지려 하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 그나마 덕호는 가끔 순애와 얘기를 나누게 되는 기회를 잡는데, 그 기회도 순애의 외출 때 잠깐 가능했던 것이다. 자신의 이야기를 고분고분 들어주는 것만으로 덕호는 순애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단정하기에 이른다.

덕호는 자기의 용모나 체격에 자신 같은 것을 갖고 있었다. 적어도 풍채로나 인품으로나 순애의 짝이 될 만한 청년은, 동네에 자기 말고는 없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다만 집안이 좀 가난하다는 것이 풀린다면 좀 풀

15) 손창섭, 「잊을 수 없는 과거」, 『명랑』, 1960.2, 239면.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면수만을 기재함. 인용자.

리는 일이었다. 그래도 가문의 격식을 찾자면 동네에서는 역시 첫 손가락에 꼽히는 집안이었다.(240면)

덕호는 순애에게 어울리는 짝이 자신이라고 확신한다. 일종의 나르시시즘적인 성향이 발동한 것이라 하겠는데, 이러한 심리적 기제 덕분에 덕호는 순애와 정식으로 결혼할 생각까지 한다. 그런데 갑자기 병삼과 순애 사이에 혼담이 오가서 당황해한다. 순애를 만나 사정을 물어볼 양이었으나 계획이 무산되고, 며칠 후 덕호는 병삼과 순애가 약혼한 사실을 알게 된다. 그때 덕호는 순애를 만나 왜 병삼과 약혼했는지 묻자 순애는 “왜 일찌감치 서둘지 않았어?”(241면)라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덕호에게 되묻는다. 그러자 덕호는 순애에게 ‘당장 파혼하라’고 독촉하지만 순애가 그러지 않겠다고 말하자 흥분하여 순애를 겁탈한다. 이러한 연유로 덕호는 그동안 고향을 찾아오지 못했던 것이다.

덕호는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해치울 만치 흥분해있었다. 그런지 반시간 가까이 지나서다. 어느새 초생달마저 기울기 시작한 밀밭 머리에, 순애가 혼자 엎어져 소리를 죽여가며 우고 있었다. 머리와 옷매무새가 마구 흥크러진 채.(241면)

이에 덕호는 고향을 내려가자마자 면사무소에서 일하는 병삼을 찾는다. 병삼은 과거의 일을 잊었다는 듯 덕호를 매우 반갑게 맞이하며,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예컨대 6·25사변, 덕호의 가족사, 순애의 불우한 처지—을 나눈다. 특히 순애의 처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덕호는 죄책감에 휩싸인다. 지난날, 덕호가 순애를 겁탈한 탓에 병삼이 파혼을 선언했고, 순애는 그 충격에 집 밖을 나오지 못하다가 먼 타지방 사람에게 시집을 샀다고 한다. 그러나 반년 만에 소박을 맞게 되는데, 그 이유는 덕호와 부적절한 일이 밝혀졌던 때문이다. 따라서 순애는 친정에 와 계집아이

를 낳게 되는데, 시댁에서는 ‘그게 어떤 놈의 씨인지 알 수 없다’, ‘부정한 씨앗’이라고 하면서 순애를 내쳤다는 것이다. 결국 순애는 어린 딸을 데리고 장터에 사는 나이 든 사내의 후처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나 장성한 전실 자식이 있어 사이가 원만치 못해 다시 친정으로 왔는데, 순애의 오빠는 6·25 때 전사했고, 양친도 그 전후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현재는 모녀가 동네에서 샅일을 해가며 어렵게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는다. 병삼은 순애와 파혼한 뒤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살림을 차리게 되었고, 덕호는 순애에게로 향하는 죄책감 때문에 혼자 살아간다.

두 사람 사이에 술자리가 끝나자 덕호는 부친의 산소에 들르고, 집에 들어가 집안 어른들과 친구들을 만난다. 그간의 이야기를 나누던 중, 덕호는 순애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음을 느낀다. 순애를 만나 사죄하고 싶은 마음뿐이지만 혹시 그녀가 충격을 받을까봐 누이를 시켜 안부를 묻는다. 그러나 순애에게서 돌아온 답변은 ‘과거사를 들출 필요가 없기에, 만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덕호는 낙심하고서 며칠 내로 상경을 하려는데, 가족들이 덕호에게 같이 살자고 말한다. 그런데 병삼이 다음날 덕호를 찾아와 ‘순애의 고모가 너를 찾는다’고 말한다. 순애 고모는 순애를 불러 앉힌 뒤, ‘지나간 일을 너무 오래 속에 품어두는 것두 죄란다. 덕호가 모처럼 돌아왔으니, 이 기회에 속을 다 풀어야지.’(244면)라고 말한다. 그때 병삼은 덕호에게 ‘사내 자식이 동네 처녀 하나쯤 건드려 놓았다 구 겁이 나서 십년간이나 고향엘 얼씬두 못할 게 뭐냐(244면)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십년간을 객지로만 돌았던 덕호를 옹호하려고 든다. 되레 이런 덕호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한다. 이에 순애는 고개를 숙인 채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다.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피해자가 순애인데, 순애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이 없거나 과거사로만 치부해버린다는 점이다. 게다가 피의자인 덕호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순애 처지의 딱함을 덕호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병삼과 집안 어른들은 덕호와 순애가 서로 결혼을 했으

면 하는 바람을 내비치고 두 사람이 천생연분이라고 부추기는데, 덕호는 ‘좋다’고 말하지만 순애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만일 그때, 덕호가 도망쳐버리지 않았더라면, 종당엔 우리끼리 결혼하게 됐을 거예요. 왜 달아나버렸어요, 왜, 왜...”

순애는 생각할수록 안타깝다는 듯이 도로 울음 섞인 소리로 변해버렸다.(245면)

집 밖으로 나와 덕호와 순애는 밤길을 걷는데, 그때 덕호가 순애에게 아직도 자기를 원망하는지 묻자, 순애는 평생 자신의 원한을 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며 흐느껴 운다. 덕호는 순애만 허락한다면 같이 살자고 하는데, 순애는 혼자 살 자신이 생겼다면 이를 거절한다. 그리고서는 먼저 자리를 박차고 달아난다. 이에 덕호는 자신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 씻을 수 있는지 스스로 물으면서 작품은 종결된다.

이상 살펴보았듯, 『잊을 수 없는 과거』는 손창섭이 1959년 8월에 마무리를 지은 후 1960년 2월 『명량』 잡지에 실은 작품이다. 서사를 살폈듯이, 이 작품은 손창섭이 기존에 발표했던 여러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고스란히 배어있다. 예컨대 남성의 (성)폭력성, 상처받은 여성, 결혼문제, 남성들의 나르시시즘적 성향 등이 그러하다. 손창섭이 주목한 이 문제들은 1960년대로 넘어가서 연재한 신문연재소설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사의 주된 골격이다.

3. 다른 작품과 연계된 반복 구조와 차이의 생성

그렇다면 『잊을 수 없는 과거』와 관련하여 주목을 요하는 대목을 정리해보고 기존 작품들과 어떠한 유사점 내지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록 하자.

우선 손창섭의 남성인물들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보자면, 특히 성적인 문제에서 대체적으로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 성향이 있다. 기존 작품들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자면 남성인물들은 스스로를 ‘부정한 씨앗’이라고 규정한 때문이다. 이 ‘부정한 씨앗’은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한 소재인데, 예컨대 「소년」에 등장하는 ‘창훈’, 「포말의 의지」에서의 ‘종배’, 「미스테인크」에서의 ‘나’가 그러하다. 이들의 모친은 대체적으로 자식을 버렸거나 도덕성이 결여되어 성적으로 문란한 창부처럼 등장한다. 아버지가 부재한 상태에서 외간남자를 집안으로 끌어들여 성행위를 한다든가, 남성인물이 자는 시간을 틈타 밤대거리를 하러 나가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 장면을 어릴 적부터 경험했기에, 남성인물들은 성장과정에서 여성들에게 가하는 폭력을 당연시 하거나 그 행동에 대해 죄책감을 지니지 못하거나, 창부였던 어머니와 누군지 모를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죄악의 씨’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그런데 「잊을 수 없는 과거」에서는 여성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남성인물이 죄의식을 갖고 귀향해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하고 이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는 점은 기왕의 손창섭 작품에서 찾아보기 힘든 특징이라 하겠다. 남성인물들이 타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인간의 도덕 윤리성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었음과 동체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상처받은 여성을 바라보거나 이를 해결하려는 주변인물들의 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들에게 상처를 받고 파혼을 경험한 여성인물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거나 요부처럼 살아가거나 아니면 상처를 혼자 감내한다. 특히 여성의 재혼은 세 번 정도로 그려지는 경우가 특징적인데, 「애정의 진리」에서 기옥, 「저녁놀」에서 인갑의 세 어머니가 대표적이라 하겠다. 「잊을 수 없는 과거」에서도 순애는 세 번이나 결혼하게 되지만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간다. 무엇보다 세 번 결혼을 한 여성에게서 출산된 아이가 주변인들에게 ‘누구의 씨’인 줄도 모르게 인식된다는 것은

손창섭이 작품 속 어머니(여성)들을 그간 부정적으로 그려왔음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은 가족들 특히 의붓자식이나 남편의 형제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가 일쑤이며, 주변인들조차도 상처받은 여성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는 경우가 드물다. ‘부정한 씨앗’을 배태한 ‘부정한 창부’로 규정하고서 되레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다. 『잊을 수 없는 과거』에서도 순애는 병삼과 파혼한 뒤 시집간 시댁 사람들에게 ‘어떤 놈의 썩지 알 수 없’는 아이를 낳았다는 이유로 파혼 당한다.

세 번째, 손창섭의 여성인물들은 남성들의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소년』에서 어린 창훈은 명자가 소변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대꼬챙이로 중요 부위를 찌른다.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남영이 타이르지만 창훈은 ‘신난다’고 말한다. 창훈의 경우,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행동인데, 손창섭이 1960년대에 발표한 신문연재소설을 보면 성인 남자가 성인 여자를 겁탈하는 범죄행위 때문에 고통에 시달리는 여성이 자주 등장한다. 『잊을 수 없는 과거』에서도 상황은 비슷하다. 덕호는 이상적 타자로 순애를 설정하고서 자신의 무의식을 그녀에게 투사하여 합일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그러나 병삼으로 인해서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자 사회적 질서에 도전하는 형태인 겁탈로 순애를 옥보인다. 폭력의 희생자 내지는 멸시의 대상으로 그려진 여성들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홀로 감내하는 모습을 보인다. 곧 여성의 상처를 이해와 공감으로 치유한다기보다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주변인들은 재혼을 유도하거나 남성과의 화해를 권유한다. 이는 ‘결혼’의 불합리함을 확인할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거니와 남성 혹은 제도의 폭력성을 여성들이 관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억지 논리가 성립될 수 있기에 문제적이라 하겠다.

네 번째, 남성인물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주변을 맴도는 다른 남성들(또는 아버지)에 대한 부정의식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예컨대 『유실물』에서의 누이와 춘자, 『치몽』에서의 을미의 주변을 맴도는 남성인물들에

대해 주인공들은 예민한 반응을 보인다. 앞서 언급한 작품의 여성들은 천사처럼 묘사되거나 ‘기묘한’ 매력을 지닌 여성으로 묘사되어, 합일하고픈 대상으로 그려진다. 쉽게 근접하기 어려운 인물로 그려지는 여성과의 합일욕망을 남성인물들이 드러낸다. 이들 여성은 대체적으로 못 남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거나, 남성들로부터 상상적 남근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게 만드는 대상이 되기도 하다. 따라서 이 여성들의 움직임은 욕망에 사로잡힌 남성들의 시선에 고스란히 포착되어 묘사된다. 이들은 거침없이 이상적인 타자와의 합일 욕망을 드러내면서, 여성도 자신을 좋아하고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강하게 지닌다. 「잊을 수 없는 과거」에서 덕호는 순애가 자신을 좋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는 일종의 나르시시즘이 발동한 것이라 하겠다. 순애는 덕호의 유토피아적 세계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대상으로 등장한다. 덕호는 병삼이 순애와 약혼을 했다는 이유로 순애를 겁탈하여 병삼에게 복수한다. 겁탈은 자신과 상상적 이자관계 형성을 형성하는 데 휘방을 놓는 제3자에 대한 적대감의 결과이다. 이러한 이상적 여성에 대한 환상도 손창섭의 기존 소설에서 자주 등장했던 모티프라 하겠다.

마지막으로는 아버지 또는 질서화된 세계에 대한 부정의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잊을 수 없는 과거」를 보면 덕호가 고향에 내려온 계기는 병삼의 편지를 받으면서인데, 그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버지의 죽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기존 소설에서도 손창섭의 인물들은 아버지 또는 아버지로 표상되는 세계에 대체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거부하는 성향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미해결의 장군소리의 의미」의 아버지, 「반역아」에서의 시종 아버지, 「고독한 영웅」의 부권 아버지가 이와 유사하다. 이 작품 속 주인공들은 법적 질서로 상징화되는 아버지에 대한 염증 때문에 좌절하는 양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잊을 수 없는 과거」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부정성은 ‘아버지 부재’와 ‘생전의 목소리’로 드러난다. 덕호의 아버지는 병삼의 편지 속에 적힌 ‘세상

을 떠나셨네.’로 등장하며, “이놈, 짐승만두 못한 놈, 다시는 고향 땅에 얼씬도 하지 말아!”(238~239면)라는 생전의 경고로 남아있는 상태다.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와 생전에 마주하고 싶지 않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그런데 역으로 보자면 덕호 아버지의 생전의 경고와 병삼의 편지 속 아버지가 없었다면 이 작품의 서사는 전진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덕호가 고향에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아버지의 존재는 양가성을 지니면서 손창섭의 작품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친 동력이라 하겠다.

1950년대에 발표했던 작품과 연관성을 넘어서서 1960년대에 발표한 그의 작품에서도 『잊을 수 없는 과거』의 주된 서사 모티프는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예컨대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이 파멸을 예고하고, 그로 인해 상처를 받은 여성은 다른 남자와 재혼하게 되고, 그것이 불행으로 되돌아오며, 지난날의 남자가 다시 찾아와 여성의 마음을 뒤흔드는 구조가 그렇다. 손창섭이 발표한 신문연재소설에서도 주된 여성인물들은 남성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실을 숨기거나 제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언급한 1960년대의 소설—『세월이 가면』, 『저마다의 가슴 속에』(통속의 벽), 『내 이름은 여자(여자의 전부)』, 『부부』, 『인간교실』, 『결혼의 의미』—에서도 이는 지속적으로 반복된다. 이러한 경향은 손창섭 자신만이 터득한 작가의식의 발로라 할 수도 있겠으나, 당시의 독자층을 고려하고 배려한 직업적인 소설쓰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고도 하겠다.¹⁶⁾ 아울러 신문소설은 상업주의와 자본주의로 인해 대중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메커니즘에 함몰되었고, 신문사에서조차 신문의 판매수입을 염두에 둔

16) 신문연재소설이 대중성을 획득하게 된 요인은 첫째 사회적 이슈들을 노골적으로 표현한다는 점, 둘째 독자들에게 친숙한 문학적 도식을 사용하여 안정감을 준다는 점, 셋째 환상과 위안을 제공하여 현실의 삶을 살게 하는 것, 넷째 대중적 성공을 거둘 경우, 그것이 집단적으로 공유된 경험과 연결된다는 것, 다섯째 대중의 사회적 정체성을 생산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김창식,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2000, 220~221면.

탓에 보다 관능적인 소설을 써달라고 작가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던 것이다.¹⁷⁾ 따라서 당시의 독자들은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발현되는지 손창섭의 소설을 통해 확인하고 싶었다고 봐야 한다.

이 작품이 손창섭의 다른 작품에서 보았던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의 유사한 반복은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겠다. 무언가를 반복하면 일정한 패턴을 지닌 행동을 유발하거나 특정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 여기서 창출되는 행동이나 결과물은 기존의 것과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반복되는 것이다. ‘반복은 억압된 본능 충동이 행위로 드러나거나, 과거의 경험을 회상¹⁸⁾해내게끔 하는 기제이다. 따라서 ‘더욱 심층적이고 내면적인 어떤 반복의 반향, 다시 말해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단독자 안에서 일어나는 반복의 반향¹⁹⁾이다.

이에 손창섭의 이 작품을 기존 작품의 단순한 계열로 보는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계열은 작은 차이들과 대조적인 관계들을 가로질러 나가면서 그 계열 전체를 주관하는 법칙으로 점점 수렴²⁰⁾한다. ‘하나의 사물이 다른 것과 하나의 계열을 이루며 연결되는 것을 계열화라고 하는데, 하나의 사실은 그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²¹⁾ 따라서 손창섭의 인물이 차이를 통한 반복으로 완성된 새로운 주체라는 점을 인지할 때, 그 반복된 소재를 통해 완성된 서사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완성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손창섭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양상이나 작품의 서사구조가 기존과 유사한 계열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차이를 반복한다고 볼 수가 있다. 손창섭의 작품이 유사한 법칙들을 통해 기성적으로 짚어내듯 탄생한 것이 아니라, 차이가

17)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 『대중서사연구』(17호), 2007.6, 15-17면.

18) 지그문트 프로이트, 『페락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옮김, 『페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28면.

19)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26면.

20) 질 들뢰즈,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이충민 옮김, 2판; 민음사, 2004, 110면.

21) 이진경, 『노마디즘 1』, 휴머니스트, 2002, 58-59면.

발생하기 때문에 반복이 가능한, 그야말로 생성으로서의 반복이 있었기에 탄생한 것이라 하겠다.

생성의 반복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손창섭이 들뢰즈 식의 ‘옷 입은 반복’을 지속했기에 그러하다. 옷 입은 반복은 ‘스스로 복장하고 가면을 쓰고 위장하면서 자신을 형성’²²⁾한다. 곧 평범한 반복 같은 혈벗은 것이 아니라, ‘독특성들 상호 간의 재취합과 응축이 가능한’ 반복을 말한다. ‘반복, 그것은 독특성들을 던지는 것, 언제나 독특성들을 어떤 메아리, 공명 속으로 던지는 것이다. 각각의 독특성은 이 공명을 통해 다른 독특성의 분신이 되고, 각각의 별자리는 다른 별자리의 재분배가 된다. 옷 입은 반복은 훨씬 심층적인 반복이자 차이나는 것의 결과’²³⁾이다. 차이를 발생시키는 반복은 새로운 의미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는 동력이 된다. 옷 입은 반복은 다행스럽게도 순수한 과거를 완전하게 기억하지 못한 데서 발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것과 차이가 나고, 그 차이 나는 것을 반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상 살펴본바 「잊을 수 없는 과거」는 손창섭이 대중잡지 『명랑』에 발표한 마지막 단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시 말해 1950년대에 순수문학을 주로 썼던 손창섭이 1960년대에 들어 신문연재장편소설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하는데, 이때 그는 ‘본격과 통속’의 경계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만 1950년대에 함몰된 손창섭을 그 이후의 ‘손창섭’으로 끄집어 올릴 수가 있게 된다. 앞서 손창섭이 언급했듯 발표지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담고자 하는 내용이 중요함을 인지할 때, 대중문학 혹은 통속문학으로 규정해버린 작품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잡지의 상업적인 특성만을 부각시켜 해석하면, 가령 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손창섭이 여성인물들을 ‘벗기고’ 창부처럼 요염하고 관능적인 모습만을 그린 것에

22)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앞의 책, 75면.

23) 위의 책, 434-435면.

집중한다면 ‘외설’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손창섭의 대중 소설에 대한 해석이 이 범주에서 멈춰버린다면 그의 1960년대 또는 대중성은 문학사에서 자리매김하기가 어렵게 된다.

요컨대 이 작품은 손창섭의 문학사에서 중요한 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새로운 작품의 발굴은 기존에 정리된 작품 연보를 재정립하게 하는데, 특히 이 작품이 대중지에 실렸다는 것은 손창섭에 대한 연구의 장이 대중지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의미가 있다. 특히 손창섭의 부인 치즈코(上野千鶴子) 여사의 발언, 그러니까 ‘손창섭이 『주간신조(週刊新潮)』에 글을 발표한 적이 있다’고 해서 일본어로 된 작품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순수문학으로 출발한 손창섭은 195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대중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작품활동의 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가 써낸 작품의 수준이 기왕의 것과 완전한 차이를 보인다기보다 유사한 계열을 형성하고 있다.

세 번째 당시 대중소설을 폄하했던 일부 평자들의 견해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다. 손창섭의 대중소설을 반드시 대중매체의 상업적 전략과 맞물려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중의 취향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썼다고 손창섭이 자기고백을 한 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를 무조건 폄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1950년대 작가들은 대중매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기에, 이는 손창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기에 그러하다. 네 번째 손창섭의 대중적 글쓰기는 잠재되어 있던 또 다른 작가적 역량의 발현으로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이는 들뢰즈 식으로 말해 ‘애벌레 주체²⁴⁾가 분화된 것이라 하겠는데, 곧 주체 안에서 다른 형태로 분화 또는 개념화되지 않는 주체를 의미한다. 그 주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역량은 강도차에 의해서 분화되는 것인데, 이때 분화된 손창섭의 주체는 대중성을 강하게 띤 것이라 볼 수 있다.²⁵⁾ 따라서 그 이전까지 규정되

24) 아르노 빌라나로베르 싸소, 『들뢰즈 개념어사전』, 신지영 옮김, 갈무리, 2012, 472면.

25) 보다 자세한 사항은 좋고, 『대중매체에 발표된 손창섭의 소설을 발굴하다』(앞의 글, 400-404

지 않았으며, 구성되지도 않았던 손창섭의 주체가 발현된 것이라 하겠다.

4. 결론

지금까지 본고에서는 손창섭의 최근 발굴작 『잊을 수 없는 과거』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일차적으로 이 작품의 서사구조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기존의 작품에서 보았던 손창섭만의 문학적 특징이 고스란히 배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컨대 남성의 폭력성, 상처받은 여성, 결혼문제, 남성들의 나르시시즘적 성향 등이 드러났다. 이러한 문학적 특징은 그의 초기작에서 비롯하여 1960년대에 발표한 신문연재소설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아울러 그가 발표했던 다른 작품과 이 발굴작이 어떠한 점에서 차이나는 공통점이 있는지도 살폈다. 그 결과 크게 다섯 가지 측면에서 기존 작품과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손창섭의 남성인물들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성적인 문제에 대해 폭력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려 하는 성향이 있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잊을 수 없는 과거』의 경우 남성인물이 피해를 준 여성에 대해 죄의식을 갖고 지난날의 잘못을 참회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상처받은 여성을 바라보거나 이를 해결하려는 주변인물들의 태도가 기존 작품과 유사했다. 여성 인물들은 가족들 특히 의붓자식이나 남편의 형제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기가 일쑤였으며, 주변인들조차도 상처받은 여성들을 측은하게 바라보지 않았다. 세 번째 손창섭의 여성인물들은 남성들의 폭력에 시달린 피해자로 등장했다. 여성들은 다만 폭력의 희생자 내지는 멸시의 대상으로 그려졌던 것이다. 네 번째 남성인물은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주변을 맴도는 다른 남성들(또는

면)를 참조하기 바람.

아버지)에 대해 강한 부정의식을 표출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 또는 질서화된 세계에 대한 부정의식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기존 소설에서도 손창섭의 인물들은 아버지 또는 아버지로 표상되는 세계에 대체적으로 반기를 들거나 거부하는 성향을 보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특징들이 손창섭 작품의 서사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었으며, 이후 1960년대에 발표한 그의 작품에서까지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기존 작품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해서, 또한 대중지에 발표가 되었다고 해서 그의 문학성을 폄훼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반복하면 일정한 패턴을 지닌 행동을 유발하거나 특정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손창섭의 인물이 차이를 통한 반복으로 완성된 새로운 주체라는 점을 인지할 때, 그 반복된 소재를 통해 완성된 서사는 지속적으로 새롭게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복이 가능한, 그야말로 생성으로서의 반복이 있었기에 손창섭은 끊임없이 작품을 탄생시킬 수가 있었다.

이상 살펴본바 「잊을 수 없는 과거」를 통해 본격문학과 대중문학의 경계선에서 활동했던 손창섭을 일면을 살펴볼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은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본고가 「잊을 수 없는 과거」를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는 데에만 집착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발굴 이상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손창섭이 차지하는 1960년대의 위치를 드러내려면, 손창섭 작품에 대한 보다 많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당대 대중문학에 손을 댔던 작가들과의 비교를 통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대 대중문화와 관련한 실증적인 자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손창섭, 『잊을 수 없는 과거』, 『명랑』, 1960년 2월, 238-245면.

2. 국내외 논저

강유진, 『손창섭 소설의 변모 양상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2012년 2월, 1-194면.

곽상인, 『대중매체에 발표된 손창섭의 소설을 발굴하다』, 『문학의 오늘』, 2018년 봄호, 400-404면.

곽상인, 『손창섭 신문연재소설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년 8월, 1-146면.

곽상인, 『손창섭의 최근 발굴작 『애정의 진리』 연구』, 『한국문학연구』(제52집), 한국문학연구소, 2016년 12월, 325-353면.

김동윤, 『1950년대 신문소설의 위상』, 『대중서사연구』(17호), 2007년 6월, 7-41면.

김명임, 『손창섭 소설 연구-인물구조와 그 관계양상을 중심으로』, 인하대 박사논문, 2005년 2월, 1-116면.

김민수,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공동체 의식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2017년 8월, 1-162면.

김창식, 『대중문학을 넘어서』, 청동거울, 2000.

류동규, 『1960년대 손창섭 장편소설에 나타난 가부장제 이데올로기 비판』, 『문화와융합』(제31집), 한국문화융합학회, 2009년 5월, 185-206면.

방민호, 『손창섭 소설의 외부성-장편소설을 중심으로』, 『한국문화』(제58호), 2012년 5월, 197-228면.

손창섭·박혜경, 『동기의 분석: 나는 왜 신문소설을 쓰는가—『부부』의 작가 손창섭 씨는 말한다』, 『세대』(제3호), 1963.8, 210면.

신은경, 『손창섭의 1950년대 후반 소설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변화 양상-『아리랑』에 실린 『애정의 진리』를 중심으로』, 『어문논집』(제70집), 민족어문학회, 2014, 117-143면.

아르노 빌라나로베르 싸소, 『틀뢰즈 개념어사전』, 신지영 옮김, 갈무리, 2012.

이봉범, 『1950년대 신문 저널리즘과 문학』,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근대문학학』(제1호), 동국대출판부, 2012.

이진경, 『노마디즘 1』, 휴머니스트, 2002.

정진석, 『한국잡지의 역사』,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 조연현, 「병자의 노래—손창섭의 작품세계」, 『현대문학』, 1955.4, 74-78면.
- 지그문트 프로이트, 「쾌락원칙을 넘어서」, 박찬부 옮김, 『쾌락원칙을 넘어서』, 열린책들, 1997.
-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김상환 옮김, 민음사, 2004.
- 질 들뢰즈, 『프루스트와 기호들』, 서동욱·이충민 옮김, 2판, 민음사, 2004.
- 최미진, 「1950년대 신문소설에 나타난 아프레 결」, 『대중서사연구』(제18집), 대중서사학회, 2007, 119-153면.
- 최미진, 『1960년대 대중소설의 서사전략 연구』, 푸른사상사, 2006.
- 편집부, 『한국잡지100년』, 사단법인 한국잡지협회, 1995.
- 한명환, 「1960년대 손창섭 신문소설의 사회적 연구—1960년대 사회적 인습과 체제에 대한 비판으로서의 신문소설 전개양상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제52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3년 4월, 463-492면.
- 한원영, 『한국현대신문연재소설연구(하)』, 국학자료원, 1999.
- 홍주영, 「손창섭 소설에 나타난 여성비판의 양상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07, 1-95면

<Abstract>

A study on *The Unforgettable Past* of Son,
Chang-sup

Gwak, Sang-In

This writing tried to analyze Son, Chang-sup's recent found novel, *The Unforgettable Past*. First, this writing looked into the narrative structure of this novel. As a result, the literary features of Son Chang-sup, which was shown in his previous works, were revealed. For example, violence in men, hurt women, marriage problems, women's sufferings, unwanted marriages and divorces. These literary features have been séried from his early works to newspaper serial novels published in the 1960s.

Son, Chang-sup's male character in this novel tried to have violent or abnormal relationships with women. Second, the attitudes of people who looked at wounded woman were still full of contempt and mockery. Third, although Son, Chang-sup's female characters were victims of men's violence, they were invited to irresponsible remarriage rather than being comforted by people around them, Fourth, the male character expressed negative consciousness about men who hovered around the woman they liked. Finally, he expressed his negative consciousness about the world symbolized by father.

As a result, there is no need to denigrate the value of this novel just because it shows patterns similar to his previous novels and has been published in public magazine. Son, Chang-sup's character is a new subject that was completed by repetition through differences. In short, this novel

was a bridge for Son, Chang-sup to move from pure literature to popularity literature. In addition, this novel played a role in raising Son, Chang-sup, which had been sunk in the 1950s, to the later ‘Son, Chang-sup’.

Key words: Son, Chang-sup, série, difference, repetition, popularity, larval subject

투 고 일 : 2020년 2월 19일

심 사 일 : 2020년 2월 20일-3월 5일

게재확정일 : 2020년 3월 11일

수정마감일 : 2020년 3월 26일